

배우 김무열 “김혜수 선배 얘기하려면 밤새도 모자라”

넷플릭스 ‘소년심판’ 차태주 판사 역
소년범에게 기회를 주자는 캐릭터

“이 작품을 하기 전엔 소년범죄를 접하면 분개하고 분노했어요. 극단적으로 생각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시스템 문제를 알게 됐습니다. 소년범죄는 온 사회가 얽혀 있는 방대한 문제거든요. 그 실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거예요.”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극본 김민석·연출 홍종찬)에는 두 개의 축이 있다. 하나는 심은석이고, 다른 하나는 차태주다. 판사 심은석(김혜수)은 소년범을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판사 차태주(김무열)는 범인이 소년들의 보호망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심은석은 “그 나이에 감히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하지만, 차태주는 “아이들을 비난하는 건 아무나 하지만 아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건 법원 뿐”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이 다르기에 두 인

물은 사사건건 충돌한다. 그리고 김혜수는 심은석을 얼음처럼 차갑게, 김무열은 모닥불처럼 따뜻하게 연기한다. 심은석·차태주라는 캐릭터의 차이, 두 인물을 연기하는 두 배우의 다름은 ‘소년심판’에 균형을 잡아준다.

배우 김무열(40)을 8일 온라인 화상 인터뷰로 만났다. 그는 “소년범죄에 대한 생각과 태도는 다 다를 수 있다”면서도 “차태주가 가진 신념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무열은 “이 드라마는 소년범죄라는 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 사회가 짊어진 커다란 숙제라는 걸 관객과 함께 얘기 나눠보려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소년심판’은 김혜수의 드라마다. 하지만 김혜수가 보여주는 감정의 진폭이 큰 연기는 상대적으로 잔잔

한 김무열의 연기와 만나 더 빛을 발한다. 그래서 김혜수는 앞서 인터뷰에서 김무열의 연기를 두고 “3명의 강성 판사 캐릭터 속에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면 차태주의 내면에 집중하는 게 놀라웠다”고 추어올렸다. 이에 김무열은 “함께 연기한 선배님들이 워낙 훌륭한 배우들이어서 제가 딱히 드러내놓고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이렇게 힘을 빼고 연기하는 게 맞는지 고민했어요. 그런데 김혜수 선배님께서 제 연기가 너무 좋다고 만날 때마다 칭찬해주시더라고요. 1·2회 편집본을 본 뒤엔 이성민 선배님이 제 연기 톤을 밀고나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김혜수 선배님이 확신을 줬고, 이성민 선배님이 굳건한 믿음을 준 연기였습니다.”

김무열은 특히 이번 작품에서 사실상 연기 파트너였던 김혜수 덕분에 한 발 짝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혜수가 김무열의 연기에 보내준 믿음이 그에게 더 좋은 연기를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그는 “함께하는 동료 배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더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잊고 있었다”며 “‘소년심판’을 하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무열은 자신에게 무한한 믿음을 보내준 김혜수와 또 한 번 연기하고 싶다고 했다. “김혜수 선배와 연기했던 배우들은 한결같이 다시 한 번 작품을 하게 된다면 김혜수 선배와 하고 싶다고 얘기한다”며 “나도 그 줄에 서겠다”고 말했다.

“김혜수 선배에 대해 얘기하려면 밤을 새야 해요. 그 정도로 배운 게 많아요. 주인공으로서 짝어지고 있는 책임감이 막중한데도 매번 현장에서 동료 배우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요. 그 칭찬 덕분에 지나후배들은 신나서 춤을 췄던 겁니다. 게다가 겸손하기까지 하세요. 본인 연기에 부족함이 많다고, 후배인 저에게도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아직까지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걸까요.”



가수 구준엽·대만배우 서희원 결혼, 한·중화권 커플 재조명



댄스 듀오 ‘클론’ 출신 DJ 구준엽(53)이 20년 전 교제했던 대만 배우 서희원(徐熙媛·서희원·46)과 결혼한 사실이 최근 알려진 뒤 한국과 중화권의 스타 커플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원조’ 한·중화권 커플은 ‘핑퐁부부’ 안재형(57)·자오즈민(59) 부부다. 한국과 중국의 탁구 국가대표였던 두 사람은 1984년 파키스탄 아시아선수권 대회에서 처음 만나 인연을 맺었다. 이후 안재형과 자오즈민은 각종 세계 대회에서 만나며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이후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둘의 인연이 결실을 볼지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기도 했다. 당시만 해도 한국과 중국이 수교(修交)를 하지 않아 국제결혼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양국은 서로 국교를 맺기 위해 노력 중에 있었다. 중국의 덩샤오핑 주석

이 자오즈민의 결혼을 허락하면서 두 사람은 1989년 결혼했다.

두 부부는 여전히 ‘일교 부부’로 유명하다. 골프선수 안병훈(31)이 두 사람의 아들이다. 안재형은 현재 방송 중인 tvN 탁구 예능 ‘올타구나!’에 코치로 출연 중이다.

김태용(53) 감독과 중국배우 탕웨이(43)의 결혼도 양국에서 크게 화제가 됐다.

탕웨이와 김 감독은 영화 ‘만추’(2010)에서 인연을 맺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지난 2014년 7월 결혼했고 2년 만에 딸 ‘서머’를 낳았다. 탕웨이가 개봉을 앞둔 김 감독의 신작 영화 ‘원더랜드’에 출연하는 등 남편과 감독과 배우로 호흡을 맞추며 여전히 끈끈한 호흡을 자랑하고 있다.

이밖에 배우 추자현(43)과 위샤오팡(于曉

안재형·자오즈민 ‘원조’

光·41) 커플, 방송인 함소원(46)과 진화(28)는 한·중화권 연상연하 커플로 유명하다.

지난 2020년 이혼했지만 배우 채필(43)·중국 배우 가오쯔치(41)도 대표적인 한·중 커플이었다.

지난 2015년 한류 스타 송승헌(46)과 중국의 ‘국민 여신’으로 통한 배우 리우이페이(劉亦菲·유이비·35)는 열애한다는 소식으로 한중이 떠들썩했다. 연애 과정에서 결별했지만, 한 때 두 사람의 결혼설이 나돌기도 했다.

한국과 중화권 커플은 같은 동아시아권에 있지만 세세한 문화적 배경이 달라 같은 나라의 일반 커플보다 소통에 더 애를 써야 한다.

김 감독과 탕웨이처럼 영어로 소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준엽과 서희원은 밀애를 나누는 동안 서로 중국어와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구준엽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서희원과 사귀면서 중국어도 배웠다”고 했다.

구준엽은 대만판 ‘꽃보다 남자’로 유명한 서희원과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기로 결정했다. 서희원은 2011년 중국 재벌 2세 왕샤오페이와 결혼했다가 지난해 이혼했다. 이후 구준엽이 20년 전 서희원의 전화번호를 찾아 연락을 했고 번호가 그대로여서, 두 사람의 인연이 영화처럼 다시 맺어졌다.

구준엽은 세부 절차를 위해 9일 대만으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럭키 “오징어 게임 알리역 거절, 땅 치고 후회”



럭키는 지난 8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2년 전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관계자에게 오디션 제안 문자가 왔다”며 “그때 제목도 정해지지 전이었다. 무작위로 캐스팅 제안 문자가 왔다”고 했다.

이러 “당시 성공한 사업가여서 어거가 올라가 있었는데 뜬금없이 불법 채류자 역할이라고 하더라.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모범 남세자라 자존심도 상해서 거절했다”고 했다. 럭키가 오디션을 거절한 역은 알리 역으로 인도 출신 배우 아누팜이 맡았다.

럭키는 “하지만 정체를 알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했다. 내가 지금 할리우드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옥탑방은 너무 좁네요”라고 했다.

럭키는 과거 JTBC 예능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현재 인도 음식점을 운영 중이다.

뉴스스

티빙 ‘괴이’ ‘술꾼’ ‘왓차’ ‘종종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초청

비경쟁 부문 ‘코리아 포커스’ 색션

티빙과 왓차 등 국내 OTT 오리지널 콘텐츠가 잇따라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CANNESERIES, Cannes International Series Festival)에 초청됐다.

9일 티빙에 따르면, 이 OTT의 오리지널 시리즈 ‘괴이’(극본 연상호·류용재, 감독 장건재)와 ‘술꾼도시여자들’(극본 위소영, 연출 김정식)이 ‘2022년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CANNESERIES, Cannes International Series Festival) ‘코리아 포커스(Korea Focus) 색션’에 이름을 올렸다.

작년 10월 첫 공개된 ‘술꾼도시여자들’은 이선빈, 한선화, 정은지, 최시원이 주인공이다. 세 여자의 우정과 일상을 유쾌하게 그려내며 티빙 역대 주간 유료가입여자수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화제를 모았다.

4월 첫 공개를 앞둔 구교환, 신현빈 주연의 ‘괴이’는 저주받은 불상에 나타난 마을에서의 괴이한 사건을 쫓는 초자연스릴러로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비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됐

다.

K-좀비 열풍을 일으킨 영화 ‘부산행’부터 지난해 센세이션을 일으킨 넷플릭스 ‘지유’, tvN 드라마 ‘방밥’ 등 한국형 오컬트 장르를 통해 장르물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연상호 작가가 집필을 맡았다.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의 류용재 작가가 합세하고, 영화 ‘한여름의 판타지아’의 장건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왓차 오리지널 드라마 ‘종종소’도 올해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비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종종소’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현실을 코믹한 상황 설정과 디테일한 현실 고증으로 녹여내 많은 직장인들과 청년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호평 받았다. 저예산 스포츠 웹드라마로 시작했고 이후 왓차가 투자, 제작했다. 현재 시즌5까지 나왔다.

국내 OTT 오리지널 콘텐츠가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공식 초청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은 전 세계 드라마 시리즈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 행사다. 지난 2018년 시작한 행사로 올해 5회째를 맞



는다. 경쟁 부문과 단편 경쟁 부문 각 10개, 비경쟁 부문에 4개의 작품이 선정된다.

올해는 4월 1-6일 열리는데, 비경쟁 일반 상영으로 ‘코리아 포커스’ 부문이 마련된다. ‘괴이’는 4월6일 오전 9시, ‘술꾼도시여자들’은 같은 날 오전 11시에 공식 상영될 예정이다.

‘종종소’의 배우들과 감독, 그리고 제작자인 왓차 박태훈 대표는 페스티벌에 참석해 레드 카펫에 선다.

역시 ‘종종소’ 상영회도 갖는다. 이와 함께 박 대표는 칸 국제 시리즈와 함께 열리는 콘텐츠 마케팅 행사인 ‘MIP TV 페스티벌’에 초청을 받아 발표도 맡는다.

장기용·엑소 찬열·온앤오프 효진 훈훈한 ‘육군 창작 뮤지컬’ 연습 현장

배우 장기용과 그룹 ‘엑소’ 찬열, 그룹 ‘온앤오프’의 효진 등이 출연하는 육군 창작 뮤지컬 ‘블루헬멧:메이사의 노래’가 열정 가득한 연습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뮤지컬 ‘블루헬멧:메이사의 노래’는 가상의 국가 카무르에서 나고 자란 ‘라만’을 중심으로 자신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준 UN평화유지군의 ‘메이사(카무르어-밝은 별)’를 찾아 한국으로 오게 된 이야기를 그린다. UN평화유지군으로 활약하고 있는 우리 군의 위상을 바탕으로 총과 칼, 전쟁 대신 문화의 힘을 전한다.

연습 현장에는 ‘라만’ 역의 박찬열, ‘연준석’ 역의 장기용, ‘윤선호’ 역의 김효진, ‘이정혁’ 역의 이인표와 이승준, ‘서은아’ 역의 윤진솔과 표바하를 비롯해 총 46명의 배우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연습은 배우, 스태프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처음



엔 긴장감이 넘쳤지만 아름다운 선율과 박진감 넘치는 군무가 펼쳐지며 환한 박수와 격려로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육군 창작 뮤지컬 ‘블루헬멧:메이사의 노래’는 오는 18일부터 5월8일까지 대성 다큐아트센터에서 공연한다.

오대환 “아버지 아픈 형 탓에 내게 모질 게 해”

배우 오대환이 아픔을 털어냈다.

오대환은 지난 8일 방송된 MBC에브리원 ‘떡볶이집 그 오빠’에서 “친형에게 장애가 있다”면서 “아버지가 엄격하셨는데 저한테만 모질 게 구셨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아버지에게 “왜 이렇게 모질게 구셨냐”고 물어봤더니 “아픈 네 형에게 미안해서”라고 하시더라”라고 회상했다.

오대환은 “장애 가진 아들이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생각이 들었지만 ‘아픈 자식만 자식이나’고 그랬다”며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시더라”라고 했다.



오대환은 아버지가 몇 해 전 세상을 떠나셨다며 “최근 아버지 생신이어서 묘에 다녀왔다. 눈물이 막 났다. 아버지가 너무 보고싶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